

노동력과 자본



조 광 호
(전남대학교 농대 교수)

농업에서 생산이라 함은 인간이 자연에 대하여 노동을 가함으로써 인간에게 효용이 높은 재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즉, 자연인 토지에 인간의 힘인 노동력을 가하되 보조수단으로 기계, 사료 등 자본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생산물을 얻기 때문에 토지와 노동력, 자본을 생산의 3요소라고 하며, 여기에 경영주의 능력과 관련된 기술이 추가되면 4요소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양돈에서는 사료를 구입하여 돼지를 사육하기 때문에 사료곡물을 재배하는 토지와는 간접적인 관계에 있고, 주로 노동력과 자본이 주요 생산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양돈에서의 생산요소인 노동력과 자본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노동력

농업노동력은 작용 방법에 따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구분된다. 정신노동은 경영자의 기술

과 지식 수준에 따라 경영의 의사결정에 관련되나, 정신노동에 투입한 시간은 측정할 수 없고, 다만 경영성과로서 반영된다. 따라서 노동투입량을 말할 때는 육체노동을 말한다.

한편 노동력의 원천에 따라 크게 가족노동력(또는 자가노동력)과 고용노동력으로 구분된다. 가족노동력은 경영주와 그 가족이 양돈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고, 고용노동력은 노임을 주고 고용한 노동력으로서 상용목부(년고, 계절고)와 일용인부, 그리고 도급 등 청부노동이 포함되나 품앗이, 협동노동력(두레, 공동사육 등)은 농가간의 노동 교환이므로 자가노동력에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고용노동에 대한 비용은 양돈 경영비에 포함하나 자가노동에 대한 비용은 경영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다만 양돈 생산비에는 고용노동비와 자가노동비를 전부 포함한다. 양돈 경영비에 자가노동비를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자가노동에 대한 비용은 실제 지불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수익에서 경영비를 뺀 양돈소득에는 이윤과 함께 자가노동에 대한 보수 등이 포함된다.

양돈경영에서 사료비 다음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노력비이므로 이의 절감은 생산비를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 양돈경영에서 노동력 절감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시설개선, 또는 기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능률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노동수단을 고도화 하거나 작업방법을 표준화 또는 간략화, 작업의 분업화와 협업화, 노동력 배분의 평준화를 들 수 있다. 노동수단의 고도화는 자동사료급여기 또는 전자감응식 사료급여기, 돈분제거 스크레파 등 동력기계나 설비에 의한 것이 있을 수 있다. 또 작업방법의 표준화와 간략화는 사료급여기, 자동급수기, 무간호분만들, 스톨 등의 적정 배치에 의한 노동력 절감이 있으며, 노동력 배분의 평준화는 모돈의 분만 간격을 균등히 조절함으로써 연중 노동력 배분을 평준화 시킬 수 있다. 기계화나 시

설·설비의 개선은 기계화 등으로 인한 노동력 절감액과 기계 등 도입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나, 최근에 양돈 목부를 구할 수 조차 없어 기계화·시설개선이 급격히 추진되고 있다.

2. 자본재

자본재는 일반적으로 이용기간의 장단(長短)에 따라 고정자본재와 유동자본재로 구분한다. 고정자본재는 내용년한이 1년 이상인 농기구·시설·돈사 등 건물·종돈 등을 말하며, 유동자본재는 한번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1년 이내에 소모되는 사료·약품·비닐 등 제재료·소농구 등을 말한다.

고정자본재에 대한 비용으로는 감가상각비, 자본이자, 유지보수비, 보험료, 조세가 포함된다. 고정자본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이 일정기간(예컨대 1년)에 소모된 양을 일정기간의 비용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계산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액법을 많이 쓰며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1년간의 감가상각비 = \frac{\text{구입가격} - \text{폐기가격}}{\text{내용년수}}$$

예컨대, 종돈 1두가 30만원이고 폐기시 가격이 9만원이며, 이용 가능기간이 3년(7산)이라면 이 종돈에 대한 연간 감가상각비는(30만원-9만원)/3년=7만원이며, 1산 이용에 대한 감가상각비는(30만원-9만원)/7산=3만원이다.

또한 고정자산에 대한 이자는 양돈을 하지 않으면 고정자산에 투입한 기계·시설·건물·종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 등에 예금함으로써 그 이자 만큼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양돈에 이들을 투입함으로써 그 이자 만큼을 비용으로 간주한 것이며 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년간의 고정자본이자 = \text{고정자본평가액} \times \text{시중이자율}(12\%)$$

예컨대 돈사·시설·기계·종돈에 투입한 금액(오래된 것은 현재 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이어야 함)이 2,000만원이라면, 연간 자본이자는 연간 이자율이 12%라 할 때 240만원이다.

유지보수비는 건물·기계·시설 등에 대한 일반 수선비와 종돈에 대한 진료비가 포함되며, 조세는 건물·기계·차량 등에 대한 세금이고, 보험료는 차량·건물·동물에 대해 보험금을 지불한 경우에 해당된다.

고정자본재에 대한 비용은 일정한 시설과 종돈을 갖추고 자돈이나 비육돈 생산을 하지 않거나, 많이 해도 이에 대한 비용이 같기 때문에 고정비라 한다.

유동자본재에 대한 비용은 사료·약품 등 실제 투입한 비용과 이에 대한 자본이자가 포함되며, 유동자본재에 대한 자본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년간의 유동자본이자 = \text{유동자본재투입액} \times \text{이자율}(12\% \times 1/2 = \text{연간회전수})$$

여기서 고정자본재의 이자와 달리 1/2로 곱한 것은 사료 등 유동자본재를 연초에서 연말까지 투입한 합계가 되기 때문에, 연초부터 계산한 이자율을 적용하기 보다는 그 반만을 적용하고, 또 연간회전수로 나눈 이유는 조수익 계산시에 연초에서 연말까지 생산한 생산물에 대해 합계한 것으로 연초·연중에 판매한 것에 대한 이자를 조수익에 합산 안했기 때문에 유동자본 이자 계산시에 이에 대한 모순을 상쇄하기 위해 연간회전수(일관경영시 2~2.4회전, 비육돈 사육시는 2.5~3회전)로 나눈 것이다. 대개 유동자본재에 대한 비용은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유동비 또는 변동비라 한다. **【예】**